

코로나 재유행 사전 차단 '총력'

정현을 익산시장,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태 점검 예방접종센터 설치, 이상 반응 대비 준비 지시

익산시가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실태와 백신 접종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사전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18일 정현을 시장과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실내 체육시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방역수칙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서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각 시설 별 방역수칙사항을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대상으로 적극 홍보 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다음달 15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이동계획,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접종을 주저하는 대상자에 대한 백신 안전성 홍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까지 마련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으며 대상자 4,868명 중 4,787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은 98.3%를 보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과 별개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18일 개인 SNS에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18일 개인 SNS에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탈(脫) 플라스틱 모두 함께해요!

강임준 군산시장,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 동참

강임준 군산시장이 18일 개인 SNS에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챌린지란, 지목을 받은 참가자가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한 가지와 피해야 할 한 가지를 SNS에 실천할 것을 약속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소셜릴레이 운동이다.

김돈곤 청양군수의 지목을 받은 강 시장은 "일회용기 그만 쓰GO! 아이스팩 재사용 하GO! 클린 군산 LET'S GO!"라는 문구를 다짐하며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강 시장은 "플라스틱 Zero가 되는 그 날까지 시민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친절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

친절행정 경진대회 개최,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익산시가 친절행정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시는 올해 직원들의 친절 역량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각종 정책과 교육을 추진하는 등 친절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친절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민원현장 서비스 개선, 신규 친절서비스 사례 등을 발굴해 우수 사례는 해당 부서와 직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전 부서에 관련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어 친절 공무원과 부서에는 인센티브 부여,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 서비스 마인드 개선을 유도한다.

친절 공무원은 해마다 5명을 선정해 근무성적평점 가점 부여, 국내연수 기회 특전, 친절명예의 전당 게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친절 부서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친절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민원인 신고와 부서 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복지혜택 제한, 자원봉사 실시 등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친절 역량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은 친절 서비스 마인드 기본 소양교육을, 부서장들은 친절행정 조직

관리와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 하반기로 나눠 경력별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비대면 캠페인(내가 먼저 인사하기, 신속한 담당자 안내),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친절행정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매일 일과 시작 전 관련 내용을 방송해 정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버 학습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학습은 행정시스템 첫 접속 시 학습화면이 자동으로 실행돼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친절행정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종합만족도 93.7점을 획득해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다.

앞으로도 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친절행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시의원 폭행은 민주주의 훼손하는 일"

수사기관 엄정 수사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시의원 폭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17일 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의원에 대한 폭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폭력은 시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 및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다양한 권한 등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시의원 폭행사건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민주주의의 대원

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군산시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수사기관에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문제는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시민화합과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러한 사태가 재발시에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 3차년도 연구팀 지원

군산대학교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단장 박성진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부단장 안민철 전기공학과 교수)은 17일 2021년도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30개 연구팀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은 2019년 '스마트새만금'을 주제로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 대학제적 연구팀의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실전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사업에 선정된 연구팀은 군산대학교 16팀, 원광대학교 9팀, 전주대학교 5팀으로 각각 스마트 바이오, 스마트 시티,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지정주제와 지역기업 애로기술 조사, 창의적 발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자유주제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안민철 부단장의 진

행으로 연구팀 운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군산시청년플랫폼센터 안태욱 센터장의 '이공계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 Start-up case study' 특강 및 팀별 연구주제 발표로 이루어졌다.

이후 참여 연구팀은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컨소시엄 대학의 다양한 연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안민철 부단장은 "앞선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와 새로운 연구주제가 서로 융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집중"하는 한편, 특히 "포스트코로나의 시대적 요구를 고려한 연구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실전문제연구단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참여 연구팀의 만족도 조사를 사업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은 불필요한 행정업무 없애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선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기업형 불법건축물 단속 익산시, 불이익 조치 예정

익산시가 올바른 건축 환경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건축 환경과 질서 등을 어지럽히는 고의적 건축법 위반 대형마트, 다중이용업 등 영리 목적 기업형 불법 건축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건축물 신고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식자재 마트 등 대형 판매 시설, 도심 속 다중이용시설, 주요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대형 건축물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익산다이어움' 사용 제한업종인 800㎡ 이상 식자재 마트, 기업형 마트 등 골목상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다각적인 불이익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쇄신 나서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시민을 대변자로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바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최근 시의원의 의정활동 중 집행부와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원 모두 한마음을 한뜻으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재발방지 대책 실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청렴교육, 정책토론회, 연구단체 등을 통해 의원 역량강화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구 의장은 향후 마땅, 갑질 사태 재발 시 윤리위원회 소집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히면서,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도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